

다문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계 및 맥락에 대한 지각과 문화적응 태도를 중심으로

최성지* · 김민선**

요약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주배경(국내출생·중도입국)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평균차이와 다문화 청년들의 관계(사회적지지, 부모자녀관계) 및 맥락(사회적주변화)에 대한 지각과 문화적응 태도(동화주의적태도,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국에 거주 중인 다문화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변량분산분석(MANOVA)과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주배경(국내출생·중도입국)에 따라 주요 변인들의 평균차를 살펴본 결과 부모자녀관계에서 국내출생 청년들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중도입국 청년들의 경우 사회적주변화, 동화주의적태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후 사회적지지와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사회적주변화가 높을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사회적지지, 부모자녀관계, 사회적주변화, 동화주의적태도,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 삶의 만족도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3A2A02096860).

* 제1저자, 단국대, 심리치료학, 학부졸업생, seongji1110@gmail.com

** 교신저자, 단국대, 심리치료학, 조교수, 12191720@dankook.ac.kr

1. 서론

2021년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는 전체 인구 대비 4.1%로(행정안전부 2020), 2006년 관련 통계 발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OECD가 외국인, 이민 2세, 귀화자 등의 이주배경 인구가 총 인구의 5%를 넘으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하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송정아 2021), 한국은 점진적으로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다.

이주배경 인구의 하위 유형이 다변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며, 10년 안팎이면 성인이 되는 이주 2세대의 비중도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 자녀 중 18세 이상 청년들의 비중은 2012년 전체 다문화 가정 자녀의 13.8%, 2015년 28.5%, 2018년 34.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19). 이와 함께 이주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이주 2세대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성인이 된 다문화 청년들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김진희 외 2021). 청년기에는 지역사회, 학교, 군대, 직장 등으로의 대인관계와 활동영역이 확장되고 이에 경험하는 정체성 혼란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에 다문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구의 진행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다양한 민족 및 인종을 받아들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한민족이라는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형적인 순혈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 자녀 세대들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연합뉴스 2019.09.23.). 다문화 가정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성은(2016)의 연구에서는 문화 정체성에 따라 대학생들을 '다문화 배경인 한국사람', '외국사람인 동시에 한국사람',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사람'으로 유형화하였는데,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다수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단일민족주의나 집단 내 차별 및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적인 변인은 개인의 문화적응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Zhou 1997), 삶의 만족도에도 차이

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 청년들에 대한 연구가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질적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를 통해 청년이 된 다문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년들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부모자녀관계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관계적 요인 중 하나로 보았다. 선행연구들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 높은 사회적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 이민자 가정 자녀들을 대상을 중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기부터 성인 전환기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가족의 가치, 지각된 가족의 지지,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양육 태도 등이 나타났다(Willoth et al. 2021). 한편, Walsh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년들이 해당 국가에서 출생한 청년들에 비해 정체성 형성, 가족 내 자살에 대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도 중도입국 청년들이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석희정·하춘광 2015; 이수진·김현주 2016).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국내출생·중도입국)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평균차를 살펴보고, 사회적지지와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 태도로 동화주의적태도와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를 살펴보았다. 동화주의적 태도는 본국 문화 보다는 이주국가의 문화를 채택하고, 주문화의 규범을 채택하고자 하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Berry(1980)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유형(주변화, 동화, 분리, 통합)이 골고루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 사회는 단일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다져져 있으며 문화적응에 있어서 동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동화주의적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에서 이주민들은 동화에 대한 압력을 높게 지각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이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이용재 2019). 한편, 이민 이후 거주 기간에 따라 문화적 동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

현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성 이민자와 2세대 이민자에게는 문화적 동화와 삶의 만족도의 연결성이 중요하나 최근 이민자에게서는 약한 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ngelini et al. 2015). 그러나 아직 국내 선행 연구들이 부족하고 특히 다문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없어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청년들의 동화주의적태도가 삶의 만족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의 교류하고자 하는 동기를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로 정의하였다.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는 개인의 발달단계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중문화를 경험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충래·홍진주 2006). 이렇듯 한 개인이 이중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이중문화를 적절히 수용한다면 적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삶의 만족도 또한 향상된다(박동진·김송미 2021). 유창민(2020)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경우 외국인 부모가 속한 나라와 한국 모두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이중문화를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국가/인종/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동기가 다문화 구성원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청년들이 경험하는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가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 가정하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국내출생·중도입국)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평균차이를 살펴보았다. 현재 제3국에서 출생하여 부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성인이 되어 한국 사회에서 학업과 취업 활동들을 지속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과 달리 제3국에서 형성된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가치관과 정체성으로 인해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김선아 2021; 조혜영·양계민 2012) 이들의 적응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꾸준히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신동윤 외(2019)의 연구에서는 국내 출생

청소년들 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외모, 가정생활, 학교소속감, 지역생활, 지역소속감 등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및 맥락에 대한 지각과 문화적응 태도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다문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및 실제적인 개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적지지, 부모자녀관계,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변인으로 사회적지지, 부모자녀관계를 설정하였다.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제공하는 심리·물리적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 또래, 이웃, 교사 등으로부터 사회적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 진로준비도 등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주·윤기봉 2018; 장유진 2019; 정윤희·전주성 2019; 최태진 2019). 예를 들어, 인효연(201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족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는 다시 가족의 지지를 높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지지가 다문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예측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 다문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제한적이지만 일부 질적연구에서는 한국 청년들에 비해 다문화 청년들의 대인관계가 다소 협소하고 성장하면서 경험한 차별과 배제 경험들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거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희 외 2021). 따라서 다문화 청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으며, 구직이나 취업준비 등 중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하

는데 필요한 자원을 얻기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변인 중 하나로 부모 자녀관계를 살펴보았다. 부모자녀관계는 다문화 청년들이 지각한 부모와의 친밀도를 의미하며,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갈등, 부모의 양육태도 등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원일 2021; 안선정 외 2013). 한편, 양미진 외(2012)의 연구에서는 국내 출생 청소년과 달리 중도 입국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오랜 기간 떨어져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살았기 때문에 입국 후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은혜·배상률(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 입국 전 부모와의 별거기간이 길수록 중도입국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며, 가정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다문화 청년들이 지각한 부모와의 친밀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주배경(국내출생, 중도입국)에 따라라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 사회적 주변화와 삶의 만족도

사회적 주변화는 한 개인이 권리, 자원 및 기회에 대한 접근 부족으로 인해 사회의 주변으로 강등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적 주변화 되는 과정 동안 개인은 객관적인 자원들 예를 들어, 교육, 고용, 주거공간, 적절한 건강 서비스 등으로 부터 멀어지게 되며(Baah et al. 2018; Dwivedi et al. 2007), 사회적 주변화는 개인의 공동체 참여, 정체성, 또는 안전한 주거공간을 박탈할 수 있다. 사회적 주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와 더불어 지각된 사회적 지위(Adler et al. 2000; Manstead 2018)와 같은 주관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주변화를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이 경제, 문화 및 정치 영역에서 사회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는 주관적인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소수자 스트레스 이론(Meyer 2003)에 따르면, 사회적 낙인에 의해 야기된 장

기간의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소외된 그룹에 속하는 개인들에게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초래한다(Skinta et al, 2016). 소수자 스트레스는 명백한 폭력 행위와 괴롭힘에서 “사회적 평가절하된 집단에 대한 편견과 편견의 무의식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표현”과 같은 미묘한 형태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개인과 집단은 인종, 성별 또는 성 정체성, 능력, 성적 지향,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나이 및/또는 종교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측면에 기초하여 소외될 수 있다. 일부 개인은 다수의 소외된 그룹과 동일시하며 교차하는 정체성의 결과로 더 많은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주변화를 높게 지각할수록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leming et al, 2017).

한 국가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 정책 및 법률 등은 소외계층의 사회적 주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문화 청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주변화 경험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주 역사가 길지 않고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청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주변화와 주변화된 인식이 더 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동화주의적태도,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 태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동화주의적태도와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를 살펴보았다. Berry(2006)는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미국 등에 정착한 이민자 자녀(만 13~18세)를 대상으로 자신이 제시한 문화적응 유형을 기준으로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유형별 적응(adaptation) 결과를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심리/행태 요인을 기준으로 네 개의 문화적응 유형인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유형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와 주류사회 즉, 정착한 사회에 참여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도출한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통합유형은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착한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활동하는 반면, 주변화 유형은 그와 정반대로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지도 않

으며 사회에 참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유형은 자신의 고유한 민족정체성보다는 정착한 국가의 시민으로 정체성을 갖고 이 사회에 참여하는 집단이고, 분리유형은 정착한 국가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한 채, 사회에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문화적 동화는 이민자의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고 난 이후에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ngelini et al. 2015). 한편, Angelini et al.(2015)의 연구에서 문화적 동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이민자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화적 동화는 이민 1세대에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민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젊은 나이에 도착한 이민자가 나이가 많은 이민자 보다 거주 국가에 통합되어 있을 수 있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도 있다(Portes and Rumbaut 2001).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에 따라 동화주의적태도에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동화주의적태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개념 중 하나인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민무숙 외 2012에서 재인용). 비슷한 문화권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경험(예, 다른 민족 그룹 안에서 수용되는 느낌)이 개인들의 삶의 만족도나 정서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Lay and Nguyem(1998)의 연구에서는 다른 민족 그룹 안에서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부족은 안정적인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어려움을 가져왔으며, 우울감과도 연결되었다. 유사한 맥락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들에서는 같은 국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설진배 외 2013).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를 살펴본 연구들이 제한적이고,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가 삶의 만족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문화 청년들의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

형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관계 및 맥락에 대한 지각과 문화적응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년들의 이주배경(국내출생·중도입국)에 따라서 주요 연구변인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관계(사회적지지·부모자녀관계) 및 맥락(사회적주변화)에 대한 지각과 문화적응 태도(동화주의적태도·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는 다문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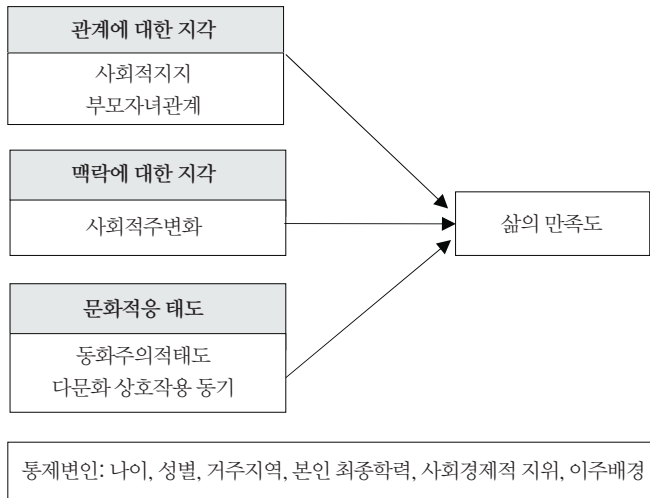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다문화 청년 중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국내출생 청년과 중도입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만 25세 이후부

터 34세 미만의 청년들을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2021년 5월부터 두달 정도 전문조사 기관에 의해 조사가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일대일 면접 조사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연구자 지원 사업(SSK) ‘이주배경 청년들의 성공적인 성인기 진입과 삶의 만족도 제고’ 연구의 일환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전체 연구 대상자는 300명이며, 이주배경은 국내출생이 204명(68%), 해외출생(중도입국)이 96명(32%)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125명(41.7%), 여성이 175명(58.3%)이었고, 평균 연령은 28.87세(SD=2.8)였다. 거주지는 서울 및 광역시 94명(31.3%), 중소도시 173명(57.7%), 농어촌 33명(11%)이었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이 중요한 타인(가족, 친구, 친척, 이웃)으로부터 받는다고 지각하는 도움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정서적지지(예,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준다), 정보적지지(예,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물질적지지(예,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평가적지지(예,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준다)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12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1이었다.

(2)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중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3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한다”,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와 같이 부모자녀관계의 친밀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7이었다.

(3) 사회적 주변화

사회적 주변화는 Issmer and Wagner(2015)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김민선·백근영(2021)에 의해 번안되어 사용되었다. 사회적 주변화 척도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을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사회적 주변화 문항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본인의 지위, 이주민으로서 느끼는 한국사회에서의 존재감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나 같은 사람은 덜 가치롭게 여겨진다”, “우리 사회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와 같은 문항들을 포함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주변화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김민선·백근영(2021)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4) 동화주의적태도

동화주의적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된 척도의 요인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동화주의적태도는 총 4문항(예, “한국인이 외국 이주민을 이해해주길 바라기보다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외국 이주민이 자녀라 하더라도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외국 이주민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이주민 여성은 시대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으로 측정하며,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64였다.

(5)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일부분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는 총 4문

항(예, “나는 기회가 있다면 외국 이주민과 같은 친목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겠다”, “학교나 직장에서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를 동료로 만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식당에 기꺼이 들어가 밥을 먹겠다”, “내가 만약 미혼이라면,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없이 기꺼이 데이트를 하겠다”)으로 측정하며,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75였다.

(6)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국내에서 민성길 외(2000)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만족도 척도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예, “당신은 당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신체(예, “당신은 (신체적) 통증으로 인해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방해받는다고 느끼십니까?”), 심리(예, “당신은 당신의 삶이 어느 정도 의미 있다고 느끼십니까?”), 사회관계(예,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 대인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환경(예,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장소의 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으로 나누어 개인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다차원 척도이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하위 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요인을 사용하였다. 민성길 외(200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87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국내출생, 중도입국)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사용하였으며, 위계적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주요 연구변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을 위해 SPSS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4. 결과

1) 주요 연구변인의 상관 및 기술통계

주요변인들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는 부모자녀관계($r=.61$),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r=.17$), 삶의 만족도($r=.52$)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주변화($r=-.36$)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자녀관계는 사회적주변화($r=-.28$)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상호작용 동기($r=.15$), 삶의 만족도($r=.30$)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사회적 주변화는 삶의 만족도($r=-.38$)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동화주의적 태도는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r=.25$), 삶의 만족도($r=.12$)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사회적 주변화를 높게 경험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며, 동화주의적태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와 삶의 만족도를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는 삶의 만족도($r=.18$)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다문화 청년들이 타문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 개방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나이	1											
2. 성별	.01	1										
3. 거주 지역	-.08	.03	1									
4. 최종학력	.10	.05	-.04	1								
5. 사회경제적 지위	.06	-.04	.05	.21***	1							
6. 이주배경	-.10	.04	.04	.11	-.02	1						
7.사회적지지	-.10	.02	.15**	.10	.23***	.06	1					

8. 부모자녀 관계	-.11	-.04	.14*	.10	.05	.12*	.61***	1				
9. 사회적 주변화	.07	-.05	-.25***	-.23***	-.13*	-.19***	-.36***	-.28***	1			
10. 동화주의적태도	-.04	.03	.07	.03	-.01	-.14*	.10	.05	-.10	1		
11. 상호작용 동기	-.09	.09	.19***	.15*	.00	-.06	.17**	.15*	.01	.25***	1	
12. 삶의 만족도	-.08	.03	.10	.21***	.32***	.02	.52***	.30***	-.38***	.12*	.18**	1

* $p < .05$. ** $p < .01$. *** $p < .001$.

2) 집단별 평균차이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이주배경과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Lueck 2018). 국내 연구들에서도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거주 국가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삶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중도입국 청년들의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비자 등의 문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국내출생, 중도입국)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주배경을 독립변인으로 사회적지지, 부모자녀 관계 친밀도, 사회적 주변화, 동화주의적태도,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공변량 행렬에 대한 동일성검정(Box's M test) 결과 [$F(21, 136647.320)=1.267, p > .001$] 집단동질성 가정이 만족되지 않아 Pillai트레이스 값을 활용하였다(Merteler and Vannatta 2005). 유의도 검증 결과 종속변수들의 전체 평균치는 다문화[Pillai트레이스=3.725, $p = .001, \eta^2 = .071$]에 따라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고).

표 2. 다문화에 따른 측정변인 평균 차이 분석

변수	국내출생(n=204)		중도입국 (n=96)		F (1, 298)	η^2
	M	SD	M	SD		
사회적지지	3.719	.528	3.655	.518	.946	.003
부모자녀관계	3.604	.510	3.469	.512	4.595*	.015

사회적 주변화	1,566	.563	1,802	.616	10,789***	.035
동화주의적태도	3,558	.717	3,760	.569	5,922*	.019
다문화수용성	3,692	.762	3,797	.806	1,183	.004
삶의 만족도	3,583	.394	3,563	.415	.170	.001

* $p < .05$. ** $p < .01$. *** $p < .001$.

3) 회귀분석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맥락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공변인(나이, 성별, 거주지역, 최종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이주배경)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지지와 부모 자녀 관계 친밀도는 삶의 만족도의 18%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 = 18.1$, $\Delta F(2, 291) = 39.187$, $p < .001$. 또한 사회적 주변화를 추가한 3단계 모델 역시 삶의 만족도의 3%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 = 2.90$, $\Delta F(1, 290) = 13.287$, $p < .001$. 마지막으로, 문화적응 태도인 동화주의적태도와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를 추가한 4단계 모델은 삶의 만족도를 추가로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 = 1.10$, $\Delta F(2, 288) = 2.564$, $p < .001$. 최종 4단계 모델에서 사회적지지($\beta = .446$, $p < .0001$), 사회적 주변화($\beta = -.197$, $p < .001$)와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beta = .098$, $p < .05$)는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와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 사회적 주변화를 높게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맥락 변인

단계	예측변수	B	SE	β	R ²
1단계	나이	-.015	.008	-.103*	.146***
	성별	.033	.044	.040	
	거주 지역	-.070	.035	-.108	

1단계	본인 최종학력	.031	.011	.157***	
	사회경제적 지위	.154	.030	.281***	
	이주배경	.001	.047	.001	
2단계	사회적지지	.341	.048	.446***	.181***
	부모자녀 관계	.001	.048	.002	
3단계	사회적 주변화	-.134	.037	-.197***	.029**
4단계	동화주의적태도	.022	.029	.037	.011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	.050	.026	.098*	

주. 나이(연속변수), 성별(0=여성, 1=남성), 거주 지역(0=농어촌, 1=중소도시, 2=서울 및 광역시), 최종학력(1=고등학교 졸업 미만, 2=고등학교 졸업, 3=전문대 재학 및 수료, 4=4년제 재학 및 수료, 5=대학원 재학 및 수료, 6=전문대 졸업, 7=대학교 졸업, 8=대학원 졸업), 사회경제적 지위(1=하, 2=중하, 3=중, 4=중상, 5=상), 이주배경(0=중도입국, 1=국내출생).

* $p < .05$. ** $p < .01$. *** $p < .001$.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관계(사회적지지, 부모자녀관계) 및 맥락(사회적 주변화)에 대한 지각과 문화적응 태도(동화주의적태도,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 관련 요인들이 다문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이주배경에 따라 다문화 청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주변화, 동화주의적태도,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 삶의 만족도 하위변인들의 평균치를 살펴본 결과 부모자녀관계, 사회적 주변화, 동화주의적 태도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국내 출생 청년들과 비교해서 중도입국 청년들의 경우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출생과 중도입국 청년들의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지만 본 연구결과는 중도입국 청년들이 입국 후 부모와의 관계 및 가족 내 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조혜영·양계민 2012; 전경숙 2017; 최영미 2021). 또한 국내 출생 청년들보다 중도입국 청년들이 사회적 주변화와

동화주의적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도입국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지각하는 사회적 주변화에 대한 지각과 한국 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을 의미한다. 중도입국 청년들의 경우 한국어 능력, 학력, 가족과의 관계적 어려움, 비자 등의 문제로 한국에서 차별을 더 높이 지각하고, 적절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김진희 외 2021; 신은주 2013; 전경숙 2017; 2020). 또한 중도입국 청년들의 동화주의적태도가 더 높았는데, 실제 중도입국 청년들의 상당수가 모국의 정체성과 경험을 버리고, 한국 사람으로 살기를 강요받는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석희정·하춘광 2015).

둘째, 연구결과 다문화 청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는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들(김민주·윤기봉 2018; 장유진 2019; 정윤희·전주성 2019)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경우 24세 이하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된 다문화 청년들의 경우 사회적응, 자립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특히 중도입국 청년들의 경우 비자 등의 문제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영미 2021). 따라서 다문화 청년들이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기회들이 마련됨으로써,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는 과정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청년들이 사회적 주변화를 높게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 또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김진희 외 202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회의 주변부에 있다고 지각하거나 청년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이나 자원을 지원받지 못할 때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주변화 혹은 배제/차별 경험들에 대한 기초연구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개인의 편견을 낮추는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 구성원들이 차별로 지각할만한 환경, 제도, 미디

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존재하는 차별요소들이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 청년들의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는 삶의 만족에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관련 연구가 한정적이지만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수집단 간의 자원의 경쟁성과 한계를 높게 지각할수록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이우영 2016). 또한 국외 연구들에서는 다른 이주민 집단과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주변화와 우울, 고립, 가치 없음 등의 정서적 어려움의 관계를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inucci and Riva 2021; Turner et al. 2007). 즉, 이주민들이 다른 인종/민족 배경을 가진 그룹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인이 가진 편견을 직면하는 것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Allport(1954)는 다른 이주 집단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평등한 관계의 보장, 공통의 목표, 상호협력, 무조건적 존중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 청년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넓혀 줌과 동시에 이주민 집단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양계민·이우영(2016)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 자체보다는 한국에 거주하는 소수집단과의 현실갈등 인식이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 자체보다는 소수집단과의 관계의 유용성이나 갈등 인식을 주제로 관련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과는 달리 다문화 청년들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동화주의적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소 상반된 것이다. 상관분석 결과 부모자녀관계와 삶의 만족도는 .30정도의 상관을 보였기 때문에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자녀관계가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동화주의적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과 불일치하는 것이다(김서정 2019; 전리상·조홍중 2019; 이상은·최나야 2021). 이주배경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국내 다문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청년기의 경우 문화 수용에 있어서 동화주의적태도 보다는 이중문화 수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김진희 외 2021; 최영미 2021). 특히 청년들의 경우 자신이 가진 이중문화의 강점을 살려 향후 직업이나 미래계획 등을 세우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 청년들의 경우 동화주의적태도 보다는 이중문화에 대한 통합이 잘 되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유형과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했을 때 한국과 외국인 부모의 문화 수용에 따라 다양한 하위집단이 존재할 수 있으며, 두 문화를 모두 수용한 통합형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동화주의적태도만으로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김서정 2019).

본 연구의 이론 및 실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 청년들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인 현 시점에서 24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집단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관련 변인들을 살펴봤으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주는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기초로 다문화 1세대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2세대, 3세대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주변화가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들이 학습과 직업현장에서 소외와 차별감을 느끼거나 혹은 필요한 자원들을 얻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고 지각할 때 한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다문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취업 정책에서 다문화 청년 특히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중도입국 청년들이 배제될 경우 청년들의 학습과 직업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최영미 2020). 특히 청년들의 언어, 비자, 가족 문제 등은 비(非)다문화 청년들이 경험하지 않은 고유한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청

년들이 지각하는 장벽은 다문화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으로부터 점차 소외되어 가는 사회적 주변화의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 청년들을 위한 초기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청년들의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한국인이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해서 가지는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이주의 역사와 배경이 다소 다르지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 다른 이민자 그룹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간의 상호작용 동기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함의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직 전국에 거주중인 이주배경(국내출생·중도입국) 청년 집단 즉,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전국 다문화가정 통계를 바탕으로 전국에 거주중인 다문화 청년의 수를 예측해 표집을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집단을 대표할 집단이 지역에 따라 적절히 표집되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결과를 국내 다문화 청년 집단에 일반화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눈덩이 표집 등을 사용해 참여자들을 소개받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집단이나 사회적 교류가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표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문화 청년을 대표하는 집단을 표집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주변화, 동화주의적태도,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는 기존 패널 데이터에서 활용했던 척도의 일부 요인과 문항을 가져와 사용한 것이기에 때문에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교신: 김민선(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조교수)(12191720@dankook.ac.kr)

Correspondence: Min Sun Kim (Assistant Professor, Psychotherapy, Dankook University)(12191720@dankook.ac.kr)

참고문헌

- 고은혜·배상률, 2017, 부모와의 별거경험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입국 후 가족환경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4), 211-232.
- 김민선·백근영, 2021, 사회적 주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관촬은 일자리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 및 주도적 성격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간이해, 42(1), 101-126.
- 김민주·윤기봉, 2018,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373-388.
- 김서정, 2019,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변화에 따른 잠재 계층 분류 및 적응특성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아, 2021, 중도 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연극치료 적용, 동국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외, 2021, 다문화배경 청년의 자기정체성에 관한 질적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4(1), 117-146.
- 노충래·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60.
- 민무숙 외, 2012, 청소년의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 민성길 외, 2000,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만족도 척도(WHOQOL)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39(1), 78-88.
- 박동진·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 16(2), 267-273.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석희정·하춘광, 2015,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가족생활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31, 1-35.
- 설진배 외,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과 초국가적 정체성:한국생활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20(3), 229-260.
- 송원일, 2021,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적 역할,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6(3), 33-55.
- 송정아, 20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정책 분석 및 제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동윤 외, 2019, 다차원 지지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3), 769-784.
- 신은주, 2013, 이주아동의 교육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1(1), 67-78.
- 안선정 외,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

- 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 양계민·이우영, 2016,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2(1), 71-105.
- 양미진 외, 2012,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주 후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2), 87-113.
- 연합뉴스, 2019.09.23., [다문화가정100만] 다문화 차별 여전... '역차별' 논란도,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236717Y>.
- 오성은, 2016, 다문화 배경 대학생의 '한국인 정체성' 관련 경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창민,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 유형, 다문화사회연구, 13(3), 73-107.
- 이상은·최나야,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경험의 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9(1), 17-29.
- 이수진·김현주, 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족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3(5), 205-235.
- 이용재, 2019, 다문화연구의 현황과 과제-정부주도 다문화 담론의 한계와 극복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74, 4-29.
- 인효연, 2017,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지각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중단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4(10), 459-482.
- 장유진,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학업성취의 차이, 글로벌교육연구, 11(4), 26-51.
- 전경숙, 2017,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준비와 정착계획에 관한 탐색적 연구, GRI 연구논총, 19(1), 441-473.
- 전경숙, 2020, 비제도권 중도입국청소년의 이주 후 사회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가족 및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 다문화콘텐츠연구, 35, 253-291.
- 전리상·조홍중, 201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2), 277-284.
- 정은희·전주성,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교육문제연구, 37(1), 167-185.
- 조혜영·양계민, 2012, 중도입국청소년 학업실태 및 진로포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3), 141-168.
- 최영미, 2021, 경기도 중도입국청소년 가족적응 지원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최태진, 2019,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연령 변화에 따른 사회적지지 요인의 변화 분석

- 및 사회적지지 잠재집단 유형과 심리·정서적 적응과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31(6), 1765-1779.
- 행정안전부, 2019, 외국인 주민통계,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2020, 외국인 주민통계, 행정안전부.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and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Angelini, V., Casi, L., and Corazzini, L., 2015, Life satisfaction of immigrants: Does cultural assimilation matter?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8(3), 817-844.
- Baah, F., Teitelman, A., and Riegel, B., 2018, Marginalization: Conceptualizing patient vulnerabilities in the framework of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An integrative review. *Nursing Inquiry*, 26,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Westview, Boulder, 9-25.
- Berry, J. W., 2006, Acculturation: A conceptual overview. In M. H. Bornstein & L. R. Cote (Eds.), *Accultura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Measurement and development*.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3-30.
- Dwivedi O. P., Khator R., and Nef, J., 2007, Marginalization and Exclusion. *Managing Development in a Global Context*, 62-79.
- Fleming, P. J., Villa-Torres, L., Taboada, A., Richards, C., and Barrington, C., 2017, Marginalisation, discrimination and the health of Latino immigrant day labourers in a central North Carolina community. *Health Social Care Community*, 25(2), 527-537.
- Issmer, C., and Wagner, U., 2015, Perceived marginalization and aggression: A longitudinal study with low-educated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4(1), 1-18.
- Lay, C., and Nguyen, T., 1998, The role of acculturation-related and acculturation non-specific daily hassles: Vietnamese-Canadian students and psychological distres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30(3), 172.
- Lueck, K., 2018, Socioeconomic success of Asi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4(3), 425-438.
- Manstead, A. S. R., 2018, The psychology of social class: How socioeconomic status impacts thought, feelings, and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7(2),

267-291.

- Marinucci, M., and Riva, P., 2021, How intergroup social connections shape immigrants'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4(3), 411-435.
- Mertler, C. A., and Vannatta, R. A., 2005, *Advanced and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Practical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3rd Edition, Pyrczak, Los Angeles.
-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5), 674-697.
- Portes, A., and Rumbaut, R. G., 2001, *Legacies: The story of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 Skinta M. D., Curtin A., and Pachankis, J., 2016, *Mindfulness and acceptance for gender and sexual minorities: A clinician's guide to fostering compassion, connection, and equality using contextual strategies*. New Harbinger Publications.
- Turner, R. N., Hewstone, M., and Voci, A., 2007, Reducing explicit and implicit outgroup prejudice via direct and extended contact: The mediating role of self-disclosure and intergroup anxie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3), 369-388.
- Walsh, S., Shulman, S., Feldman, B., and Maurer, O., 2005,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internal processes and developmental tasks of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5), 413-426.
- Willroth, E. C., Atherton, O. E., and Robins, R. W., 2021, Life satisfaction trajectories during adolescence and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Findings from a longitudinal study of Mexican-origin you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0(1), 192-205.
- Zhou, M., 1997, Growing up American: The challenge confronting immigrant children and children of immigra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1), 63-95.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Youth with Migrant Backgrounds

Seong Ji Choi* · Min Sun Kim**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an difference of major variables according to immigrant background and the influence of the relationship, environment, and cultural adaptation attitude that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young people. For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300 multicultural young people residing across the country. Multivariate analysis variance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0.0 statistics package softwar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verage difference of major variables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background, the average of native-born with mixed par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immigrant youth had significantly higher social marginalization and assimilation attitudes. When demographic variables were controlled, social support, social marginalization, and motivation for intercultural contact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Keywords Social Marginalization, Social Support, Parent-Child Relationship, Assimilation Attitude, Motivations for Intercultural Contact, Life Satisfaction

* First-Author, Dankook University, Undergraduate Graduate, seongji1110@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Dankook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12191720@dankook.ac.kr